

[특집]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노달리타스를 위한 한국 교회의 사목 구조\*

—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를 중심으로 —

■  
엄재중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상임 연구원]

- 
- 
-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 II. 제16차 정기총회 「최종 문서」의 개요와 시노달리타스의 핵심
    - 1. 「최종 문서」의 개요
    - 2. 「최종 문서」가 전하는 시노달리타스의 핵심
  - III. 사목 평의회와 주교회의를 중심으로 한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사목 구조
    - 1. ‘교회적 식별, 결정 과정, 투명성/책임감 있는 설명/평가’를 구조화하는 교회
    - 2. 시노달리타스와 참여 기구
    - 3. 주교회의와 시노달리타스
  - IV. 나오는 말
- 
- 

##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가톨릭교회 안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는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개최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와 시기적으로 상당 기간 겹친다. 교황 즉위 이후부터 「복음의 기쁨」을 통해 교회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팬데믹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 교황은 “코로나19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멈추고, 기존의 관례와 우선순위에 변화를 주라고 요구합니다”<sup>1)</sup>라고 말한

---

\* 이 글은 202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다.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시작된 주교시노드는 이런 면에서 교회 쇠신의 신호탄과 같다. 또한 교황에게 팬데믹은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세계 공동체라는 인식을 삼시간에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그 배 안에서 한 사람의 불행은 모든 사람의 불행이며,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함께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절히 체험하게 하는 사건이었다.<sup>2)</sup>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를 위한 「예비 문서」는 위와 같은 교황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제16차 정기총회의 배경으로 삼는다.<sup>3)</sup>

「예비 문서」와 함께 발표된 「편람」 역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적 분쟁, 기후 변화, 이주, 다양한 형태의 불의, 인종 차별, 폭력, 박해 등 인류 가운데 증대되는 불평등을 상기시켜 주며,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성적 학대, 권력 남용, 양심을 저버린 행위로 미성년자와 약자들이 겪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편람」은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기존의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sup>4)</sup>라고 하였다. 「편람」은 교구 시노드 과정을 위한 방법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직면하는 도전 과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가운데에서 교회 됨, 또는 그들이 놓인 맥락에 관련된 것들과 같이 함께 겪은 체험들을 서로 나누는 데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본당과 교구 차원에서 펼쳐질 자문 모임들을 격려하고 있다.<sup>5)</sup>

코로나19 팬데믹은 체험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세계와 교회가 당면한 위기의 정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시노달리타스와 세계주교시노드 16차 정기총회는 이 도전과 위기 속에서 교회가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사건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1) 프란치스코, 『렛 어스 드림: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 21세기북스, 2020, 148쪽.

2) 참조: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32항.

3) 참조: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예비 문서」, 5항.

4) 참조: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편람」의 서론.

5) 참조: 「편람」, “5.1. 교구 시노드 과정을 위한 방법론”.

총회는, 단기적으로 보면 팬데믹의 질곡 속에서 팬데믹 이후를 내다보며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모색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한가운데서 감염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하느님 백성으로 교회의 삶에 대해 돌아보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 대해 성찰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팬데믹 이후 한국 교회의 사목을 생각할 때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는 결코 빼놓을 수 없다.

시노드 과정에서 보편 교회와 전 세계 지역 교회는 지속적인 상호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인 하느님 백성임을 체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가시적으로는 총 2회기로 이루어진 시노드 과정에서 「예비 문서」와 「편람」, 제1회기와 제2회기 의안집과 대륙별 회의를 위한 작업 문서, 그리고 제1회기 「종합 보고서」와 제2회기 「최종 문서」라는 보편 교회의 문서들을 남겼다. 또한 이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지역 교회인 한국 교회는 총 3개의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제1회기 의견서」,<sup>6)</sup> 「대륙 회의 의견서」,<sup>7)</sup> 「제2회기 의견서」<sup>8)</sup>)와 교구별 의견서들을 작성하였다. 보편 교회의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이 의견서들은 본당과 교구, 주교회의 차원에서 많은 하느님 백성이 그 자문 과정에 참여했고, 직무적으로는 개별 주교와 주교회의가 이에 대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문서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도드라진 한국 교회의 도전 과제들을 돌아보면서 시노달리타스를 자신의 삶과 사명 안에서 구현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떠한지 성찰하였다. 제16차 정기총회는 시작부터 「예비 문서」를 통해 이번 시노드의 목적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고 전제하였지만,<sup>9)</sup> 우리는 가시적으로 제16차 총회의 체험 속에서

6) 참조: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편의상 「제1회기 의견서」로 약칭).

7) 참조: 「아시아 대륙 회의를 위한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편의상 「대륙 회의 의견서」로 약칭).

8) 참조: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2회기 준비를 위한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편의상 「제2회기 의견서」로 약칭).

9) “시노드의 목적을 상기하면, 이번 자문은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 꿈을 심

그리고 문서들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다.

이제는 언제 코로나19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팬데믹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진 것 같다. 그렇지만 팬데믹의 여운은 우리 사회와 교회에 커다란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가 아직 인류를 어둠 속에 몰아 놓고 있던 즈음인 2021년에 시작되어 2024년 10월에 폐막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는 어떤 면에서 팬데믹 이후 교회의 사목과 나아갈 길을 모색한 시노드였다. 그것은 단지 「최종 문서」만 남긴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지역 교회들과 보편 교회 안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에 따른 시노드 방법론들을 남겼다. 이제 한국 교회는 다른 지역 교회들과 함께 이번 총회의 결실을 공유하며 한국 교회의 사목 현장에서 수용하고 이행할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것이다.<sup>10)</sup>

아래에서는 교황의 통상 교도권 문서로 인준된 제16차 정기총회의 「최종 문서」의 개요와 「최종 문서」가 말하는 시노달리타스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고, 이어서 제16차 정기총회의 결실을 한국 교회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목 평의회와 주교회의를 중심으로 한 시노드적 사목 구조는 어떻게 가능한지 「최종 문서」의 내용들과 한국 교회 의견서들을 겹쳐 보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

고 예언과 전망을 이루어 내며 희망이 꽃피게 하고 신뢰를 불어넣으며 상처를 감싸고 함께 관계를 만들어 내며 희망의 서광을 깨우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또한 정신을 일깨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우리의 손에 힘을 주는 빛나는 지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예비 문서」, 32항).

10) 참조: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최종 문서」(Final Document, 2024.10.26), 9항;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19조.

## II. 제16차 정기총회 「최종 문서」의 개요와 시노달리타스의 핵심

### 1. 「최종 문서」의 개요

지난 2024년 10월 26일 한 달여간 진행된 세계주교시노드 제2회기 총회에 대한 결론으로서 「최종 문서」가 발표되었다. 「최종 문서」는 서론 12개 항과 결론 4개 항, 그리고 본문 5부(제1부 36개 항, 제2부 30개 항, 제3부 30개 항, 제4부 27개 항, 제5부 12개 항)의 총 15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시노달리타스의 심장’(13~48항)은 성령의 부르심에 따른 시노드적 회심에 대해 말한다. 제2부 ‘배 위에서 함께’(49~78항)는 성소(소명), 은사, 직무가 상호 결합해서 사명을 형성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관계의 회심’을 다루고 있으며, 제3부 ‘그물을 던져라’(79~108항)는 교회적 식별, 의사 결정 과정,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설명과 평가의 문화라는 긴밀하게 연결된 실천들을 다루고 있다. 제4부 ‘풍성한 고기잡이’(109~139항)는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는 경험이 깊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에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유대의 엄함과 은총의 교환을 새로운 형태로 배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5부 ‘나도 너희를 보낸다’(140~151항)는 별도의 소재목 없이 시노달리타스의 선교사들로서 하느님 백성의 시노달리타스 양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한 대의원들(총 355명)은 제1회기에서처럼 압도적인 찬성 표결을 했다.<sup>11)</sup> 가장 반대표가 많은 항은 60항<sup>12)</sup>(찬 258명 / 반 97명)이었고, 125항<sup>13)</sup>(찬 310명 / 반 45명),

11) 참조: [https://press.vatican.va/content/dam/salastampa/it/fuori-bollettino/pdf/Risultati%20Votazioni\\_Sinodo.pdf](https://press.vatican.va/content/dam/salastampa/it/fuori-bollettino/pdf/Risultati%20Votazioni_Sinodo.pdf)(검색일: 2024.11.25.).

12) 60항은 사명 수행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주로 다루며, 여성의 부제 직무 수품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13) 125항은 주교회의에 대한 시노드 총회의 결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주교회의의 신학적·법적 지위, 교리적·규범적 권한의 범위, 개혁을 위한 주교회의의 실천적 기능과 평가, 모든 교구와 관구의 주교회의 편입, 주교회의 결정의 적용 범위 등을

27항<sup>14</sup>(찬 312 / 반 43명), 148항<sup>15</sup>(찬 315명 / 반 40명), 92항<sup>16</sup>(찬 316명 / 반 39명), 129항<sup>17</sup>(찬 317명 / 반 38명), 133항<sup>18</sup>(찬 318명 / 반 37명), 136항<sup>19</sup>(찬 318명 / 반 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표에 비해 찬성표가 훨씬 많았지만 이 항들은 나름대로 오늘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논쟁적 지점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한다. 항의 수를 감안해야 하지만 첩터별 반대 의견은, 제4부 ‘유대(연대)의 회심’(총합 402명), 제3부 ‘과정의 회심’(373명), 제2부 ‘관계의 회심’(341명), 제1부 ‘시노달리타스의 심장’(157명), 서론(63명), 제5부 ‘선교하는 제자로 양성하기’(61명), 결론(6명)의 순으로 많았다. 교황은 즉시 이 문

다루고 있다.

14) 27항은 시노드 모임과 성체성사의 연관성을 살피면서, 전례 거행이 시노달리타스를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특별 연구 그룹을 요청하고 있다.

15) 148항은 수품 직무 후보자들을 위한 시노달리타스 양성에 여성이 참여하는 문제, 공동체의 일상생활에 참여, 교회의 많은 사람들과 교회적 식별을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 강조하고, 기존의 「사제 양성 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6) 92항은 자문(consultazione)과 심의(deliberazione)에 대한 현행 교회법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다양하게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교회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교, 주교단, 로마 주교의 의사 결정 권한은 계제적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특별히 참여 기구의 자문 과정에서 나타나는 방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17) 129항은 관구 공의회와 전체 공의회를 포함하는 개별 공의회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복음의 기쁨」, 16항에서 주창한 ‘건설한 분권화’의 관점에서 주교회의와 함께 교회 역사에서 오랜 기간 있어 왔던 이 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 공의회와 정기적 소집과 공의회 폐막 뒤의 교황청 인준 절차 등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18) 133항은 라틴 교회와 동방 교회 사이의 선물(은총)의 교환에 대해 언급하며 다양한 차원에서 평의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동방 가톨릭교회를 위한 특별 시노드를 교황에게 제안하고 있다.

19) 136항은 주교시노드 자체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주교시노드는 제15차 정기총회 직전에 발표된 주교시노드에 대한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에 따라 일회성 행사(event)에서 교회적 과정(process)으로 전환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주교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주교시노드는 이제 단계별 과정의 형태로 전체 하느님의 백성, 주교단, 교황 사이의 구성적 관계의 표현이며 도구이다. 여기서 주교시노드는 그 주교적 성격을 보존하면서도, 선교를 위해 구성적으로 관계적이며 그러므로 시노드적인 측면을 하느님 백성의 참여를 통해 보아왔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서 뒤에 후속 교황 권고를 발표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고, 이 「최종 문서」는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18조에 따라 교황의 통상 교도권 문서에 포함되게 되었다.<sup>20)</sup>

「최종 문서」는 문서를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성경 구절(요한 20,19-20)을 인용하면서, 교회 생활의 모든 새로운 발걸음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과과의 만남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천명한다(1항). 곧 교회 생활의 처음과 끝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과의 만남을 새롭게 하기,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현존을 지금 여기 하느님 백성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시노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연장하고 그 결과를 다시 수용하기 위한 것임을 천명한다. 결국 시노달리타스와 시노드 교회는 결국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과 그 결과를 더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하기 위한 연장선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5항).

시노드 참가자들은 시노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한다. 곧 “우리는 피로와 변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식별하는 것보다 자신 생각을 앞세우는 유혹을 스스로 경험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로 인해 우리는 매번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6항). 그리하여 시노드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회개와 회심의 과정,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의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노드 과정은 총회의 폐막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행하는 단계를 남겨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지역 교회는 다양한 교회 현실에서 시노드적 전환(synodal conversion)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경로를 채택해야 하며, 이에 “주교회의가 시노드 교회로서 성장하는 데 동행하고 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와

20) Cf. Francesca Merlo, “Pope: ‘Synod final document forms part of papal Magisterium’”, *Vatican News*, 25 November 2024.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9항)한다.

「주교들의 친교」가 가르치고 있는 세계주교시노드의 3단계 과정, 곧 준비, 거행, 이행의 단계를 생각한다면 제16차 정기총회는 종료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행과 실천을 위한 첫걸음을 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이번 제16차 정기총회는 3년의 기간 동안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 또는 지역 교회들 사이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상호 순환 과정을 거침으로써 주교시노드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과정’임을 확인해 주었고, 그 결실로서의 「최종 문서」 역시 별도의 후속 교황 권고 없이 「주교들의 친교」, 제18조에 따라 교황의 통상 교도권 문서에 포함되게 되었다. 시노드 과정의 출발점이며 도달점은 바로 하느님 백성이며, 시노드 총회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선물들이 백성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준비와 거행의 시기에 이루어진 다양한 결실들이 한국 교회의 하느님 백성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게 할 것인지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이다.<sup>21)</sup>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최종 문서」에 관한 공지’(2024.11.24.)<sup>22)</sup>를 통해 이 「최종 문서」가 베드로 직무의 통상 교도권 문서에 포함됨을 확인하고,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지침들을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맥락을 고려해서 실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최종 문서가 지역 교회 안에서 실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한국 교회와 개별 교구의 상황 안에서 이 지침들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 「최종 문서」의 내용과 지난 3년간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성찰의 내용과 조응시키며 주제별 성찰의 심화와 구체적 실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1) 참조: 「주교들의 친교」, 7항.

22) Note of the Holy Father Francis to Accompany the Final Document of the 16th Ordinary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2024.11.24.



## 2. 「최종 문서」가 전하는 시노달리타스의 핵심

「최종 문서」의 정의에 따르면, 시노달리타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인류와 더불어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이는 ‘사명을 지향하기에 교회적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함께 모이는 것, 상호 경청, 대화, 공동체적 식별, 성령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현하는 동의 형성, 그리고 분화된 공동 책임성 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수반한다. 시노달리타스란 더 참여적이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곧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모든 남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영적 쇄신과 구조 개혁의 길이라 할 수 있다(28항). 나아가, 「최종 문서」는 교회 생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국제신학위원회의 정의를 받아들인다.<sup>23)</sup>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친교’ 개념은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을 의미하는 시노달리타스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함으로써 친교와 시노달리타스의 관련을 언급한다. 이어서 시노달리타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지향한다. 곧 사명은 시노달리타스를 일깨우고 시노달리타스는 사명으로 나아간다(32항). 이런 시노달리타스 의미 이해에서 교계 직무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한 선물이며 교회적 친교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노달리타스는 교계 직무를 이해하는 적절한 해석 틀로서 성품성사와 교계 직무는 모두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영성적 측면에서, 시노달리타스는 무엇보다도 세례자의 일상 생활과 교회 사명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는 영적 기질(spiritual

23) 참조: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생활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0, 70항. 이 문서에 따르면 시노달리타스는 무엇보다 교회의 삶과 사명을 특징짓는 고유한 방식이다. 둘째,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다양한 차원의 유비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신학적·교회법적 의미에서 가장 특수하고 한정된 의미에서 교회 구조와 교회 절차들을 가리킨다. 셋째, 시노달리타스는 관할 권위로 그리고 교회 규율로 정해진 특정 절차에 따라서 교회가 소집되는 시노드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칭한다.

disposition)이다. 시노드 영성은 성령의 활동에서 비롯되며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침묵하고, 마음의 회심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쇄신은 은총의 우선성을 인식할 때만 가능하다.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깊이가 부족하면 시노달리타스는 그저 조직 운용의 방편으로 전락하기 쉽다(43-44항).

제16차 정기총회 과정에서 폭넓게 이루어진 ‘성령 안에서의 대화’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도구이다. ‘성령 안에서’ 대화한다는 것은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음적인 분위기 속에서, 믿음의 빛으로 나눔을 경험하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45항).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삶과 행동의 중심에 두도록 부름받았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의무가 된다. 이 길을 걷는 것은 정의의 행위이자 이 세상에서 하느님 백성의 선교 임무이며, 우리가 위로부터 청해야 할 선물이다. 이 길을 계속 걷고자 하는 열망이 시노달리타스 쇄신의 열매이다(46항).

「최종 문서」는 시노달리타스가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 예언적 목소리를 내고 공동선 실현을 추구하며, 문화적 개인주의와 사회적 공동체주의 모두에 반대하고 통합 생태론의 길에서 모든 관계에 대한 돌봄을 강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곧 시노달리타스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다(47-48항).

### III. 사목 평의회와 주교회의를 중심으로 한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사목 구조

제16차 정기총회는 시노드를 시작하며 「예비 문서」를 통해 “시노달리타스 방식은 구조와 절차들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의도와 바람이 말뿐인 것으로 쉽게 평가절하될 수 있다. 그리고 활성화되

지 않는다면 과정들과 사건들은 공허한 형식이 되어 버린다”<sup>24)</sup>라고 한 바 있다. 이것은 시노달리타스 방식이 구조적 개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시노드 과정 내내 이야기 되는 본당과 교구 차원의 사목 평의회 의무화와 활성화, 또 주교회의의 역할에 대한 것은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최종 문서」를 따라서 그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에서는 먼저 이런 시노드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교회적 식별, 결정 과정, 투명성/책임감 있는 설명/평가’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사목 평의회와 주교회의로 이어지는 시노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교회적 식별, 결정 과정, 투명성/책임감 있는 설명/평가’를 구조화하는 교회

### 1) 「최종 문서」에 나타난 3가지 요소의 상호성

「최종 문서」의 제3부 ‘그물을 던져라’는 과정들의 회심을 다루고 있고, 여기서는 오늘도 교회가 걸어가야 할 사명 수행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그리스도께 응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경청은 다음의 3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곧 교회적 식별, 결정 과정에 대한 관심, 책임감 있는 설명, 결정의 결과에 대한 평가이다(79항). 이 세 가지 실천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결정 과정에는 교회적 식별이 필요하며, 교회적 식별은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하고, 신뢰의 분위기에서 하는 경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양성에 힘써야 한다.

#### (1) 교회적 식별

「최종 문서」는 교회적 식별은 성령과 함께하는 식별이며, 단지

24) 「예비 문서」, 27항.

조직 운영 기술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 실천임을 강조한다. 이 교회적 식별은 가급적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을수록 풍성해지는데, 특별히 교회와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한다(82항). 동시에 하느님 말씀의 경청은 모든 교회적 식별의 출발이며 기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느님 말씀을 듣는가? 「최종 문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전과 성경, 교도권에 대한 개인적 공동체적 묵상, 대중 신심,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역사의 사건, 인간의 양심 등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강조한다(83항). 교회적 식별의 중요 요소로는, 식별 대상의 분명한 제시와 그 이해를 돕는 적절한 정보 제시와 도구 활용, 기도/하느님 말씀의 경청,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노력, 올바른 경청과 폭넓은 합의 추구 노력, 합의 도달 시 합의 과정의 공표 등을 들고 있다(84항). 또한, 식별은 항상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그 복잡성과 특성을 잘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경과 전통, 교부 문헌, 교도권뿐 아니라 다양한 신학 분야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85항). 이런 교회적 식별을 위해서는 소공동체와 본당부터 시작하여 사명에 대한 교회적 식별을 키우는 문화를 확산하고 육성하는 양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동반자 또는 활성화 양성도 역시 중요하다(86항).

## (2) 결정에 이르는 과정

시노드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사명을 수행하고자 나서고 이들은 하느님 뜻에 더 합당한 사목적 결정을 내리고자 모인다. 그리고 이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하느님 백성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시노달리타스를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최종 문서」는 말한다(87항). 모든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 받은 저마다의 공동 책임성에 근거하여 이러한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하고, 이들은 그 안에서 고유한 능력과 재능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역할 증진을 위해서도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종 문서」는,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 정

보를 주고 그 결정을 뒷받침하기에, 이 두 과정은 갈등보다 결합을 통해 내려진 결정들이 하느님의 뜻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만장일치를 추구하고, 회중과 주재자 사이에서 더욱 상호적인 과정이 절차적으로 증진되어야 한다(90항).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회법에서 자문을 의무화하는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결정 과정에서 공동체가 합의에 이룬다면 결정권자는 우월하며 적절히 표명되어야 하는 이유가 없는 한 쉽게 그 자문 결과를 물리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91항).<sup>25)</sup> 「최종 문서」는 나아가 교회 안에서 권위의 행사는 독단을 강요하는 데 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친교에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에 봉사함하는 것임을 강조한다(91항). 시노드 교회에서 주교와 주교단과 로마 주교라는 교도권의 세 주체들의 의사 결정 책임은 교회의 교계 구조에 근거해서 양도될 수 없지만, 특별히 참여 기구들이 수행한 자문 과정은 무시될 수 없다고 하였다. 「최종 문서」는 지속적으로 자문과 심의 사이에 어떤 대립도 없음을 강조하면서 자문과 심의 사이의 구분과 결합을 분명하게 하고,<sup>26)</sup>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밝히는 시노달리타스 관점에서의 교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92항).

나아가 「최종 문서」는 의사 결정 과정이 결실을 맺는 데 중요한 요소로는 크게 관할 권위자의 의무,<sup>27)</sup> 자문 참여자의 의무,<sup>28)</sup> 결정에 대한 존중 의무<sup>29)</sup>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93항). 이

25) 참조: 교회법 제127조 제2항 제2호. 이것은 결국 그 자문의 결과를 물리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권자의 설명 노력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26) 「최종 문서」는 자문과 심의 사이의 대립은 부적절하며, 교회법전에서 ‘건의 투표권만’(tantum consultivum) 행사한다는 규정이 모호하다고 말한다.

27) 결정 책임자 또는 자문과 심의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전문성이나 사안과의 관련성 때문에 자문 대상자로 선정될 사람들을 규명, 모든 참가자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이다.

28) 지식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받은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고,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할 책임 등이다. 이에 따라 사목 권위는 자문 참여자가 제시한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9) 세례를 통한 친교의 유대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와 관련해서 「최종 문서」는 의사 결정 과정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은 지역 교회의 몫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올바르게 단호한 시노드 방식, 특히 참여 기구들을 통해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느님 백성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며, 만일 이것에서 구체적 변화가 없다면 시노드 교회의 전망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며 하느님 백성을 더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94항).

### (3) 투명성, 책임감 있는 설명, 평가

「최종 문서」는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설명, 그리고 평가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특별히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설명하는 것은 사도 시대까지 올라가는 오래된 교회 전통에 속한다(사도 11장). 최종 제안에 따르면, 투명성은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신뢰의 보루이며, 신뢰가 무너지면 가장 약하고 힘없는 이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고 경고한다. 교회가 신뢰받는 곳에서는 투명성, 책임감 있는 설명, 평가의 실천들이 교회를 굳건히 하는 데에 기여하고, 또 역으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실천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97항).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설명,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 사항으로는 재무 평의회 기능 실질화, 사목과 재정 기획에 하느님 백성의 참여, 교회 자산과 재정 자원의 투명성 제고 노력(외부 감사, 재무 제표 준비와 공표 등), 교회 내 모든 직무와 직책 수행에 대한 정기적 평가 절차 등을 내세운다(102항).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투명성, 책임감 있는 설명, 평가의 효과적인 형태와 절차를 시노달리타스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은 지역 교회들과 주교회의의 몫이라고 하며, 그 실천 결과에 대해서는 사도좌 정기 방문 보고서에 적을 필요가 있다(101항).

「최종 문서」는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설명의 부재가 성직주의의 결과이며 동시에 성직주의를 부추기는데, 성직주의는 교회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고립되어 있거나, 나머지 하느님 백성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

는다는 암묵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98항). 또한 평가는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직무적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행동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강조하고, 교회가 경험을 통해 배우고, 행동 계획을 재조정하고, 성령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 사명과 관련된 결정의 결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100항).

한편, 2023년에 열린 제1회기 「종합 보고서」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언급이 두 군데서 이루어진다. 곧 ‘11. 시노드 교회에서 부제와 사제’에서 “투명성의 차원과 책임의 문화는 시노드 교회를 건설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책임 역할을 수행하는 사제와 부제의 직무 수행 방식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들과 구조들을 식별할 것을 지역 교회에 요청한다”(11.11)고 하고 있다. 또, ‘12. 교회적 친교 안에서 주교’에서 미성년자와 약자의 돌봄을 위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과, 주교회의 등의 교회 연합체에서 이 기구가 단체성이 구체적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형제애, 상호 지원, 투명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12.13). 주로 성품 직무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 2) 한국 교회의 의견

이 주제와 관련한 한국 교회의 의견은 제1회기와 제2회기를 위한 의견서, 그리고 아시아 대륙 회의를 위한 의견서에서도 일부 볼 수 있다. 먼저 「제1회기 의견서」에는 ‘9. 식별과 결정’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개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본당 차원의 의사 결정 과정은 사제 중심으로 독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인식들이 많았다. 의사 결정이 몇몇 주요 임원들과 본당 신부가 상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렇게 충분한 참여와 토의 과정 없이 결정된 사안은 냉소와 비판,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교회 내 세 신원의 입장은 다소 다른 것으로 이야기된다. 성직자들은 자신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책임 의식과 결정 구조 속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견해가 있었고, 평신도들 편

에서는 대화를 원하지만 막상 대화에 나서는 것에는 수동적인 모습이었고, 수도자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때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들 역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동 협의의 한 주체로서 역할이 존중받기를 희망하였다.

「제1회기 의견서」에는 교구와 본당 대형화가 의견 개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신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책임감과 참여 의식을 진작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소공동체 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본당 모임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논의하며, 이 과정에서 소수 의견도 묵살하지 말고 고려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더불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역시 식별과 의사 결정 과정에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회의 방식 역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경청과 자유로운 발언과 이에 적합한 자리 배치, 사제보다 평신도에 의한 회의 진행, 회의 중 기도와 침묵의 시간 마련 등이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주교시노드 과정의 본당 경청 모임이 좋은 모범이 됨을 체험하였으며, 이 방식이 교구와 본당에 뿌리내리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식별 과정에서 합당한 근거를 형성하는 것은 다수의 ‘여론’보다 ‘하느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이익이나 주장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영적 선익을 먼저 생각하며,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요 문제를 결정할 때 전례를 하고 회의에 임하기를 희망하였다.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곧 성령께서 하시는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안에 맞는 기도를 선정, 신자들이 지속적 지향을 두고 기도를 바치며 미사 전례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사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주요 과정과 내용을 반드시 공동체에 다시 알려주어야 구성원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제2회기를 위한 한국 교회 의견서」에서도 시노드 과정에서 강조해 온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제들의 직무 수행을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요청과 제안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증 제도 운용은 자칫 커다란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회 내 신뢰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점검 절차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sup>30)</sup>

## 2. 시노달리타스와 참여 기구<sup>31)</sup>

제2회기 「최종 문서」는, 참여 기구들은 시노드의 지침들을 신속하게 실행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였다(103항). 특별히 본당과 교구 차원의 사목 평의회는 이런 참여 기구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목 평의회’를 처음으로 제시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sup>32)</sup>에서부터 1983년의 교회법전,<sup>33)</sup> 그리고 현재까지 보편 교회의 가르침은 사목 평의회가 교구와 본당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신학위원회의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에서부터 최근 폐막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에 이르기까지 사목 평의회들의 의무화를

30) 참조: 「제2회기를 위한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23항.

31) 「최종 문서」에서 참여 기구는 103~108항에 걸쳐 이야기되며, 여기서 해당 내용은 이 항들에서 참조한 것이다.

32) “각 교구마다 특별히 교구장 주교가 직접 주재하고 특별히 선발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동참하는 사목 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valde optantum est). 이 평의회는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가진다”(「주교 교령」, 27항); “주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목 평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선임된 대표자들을 통하여 거기에 참여하여야 한다”(「선교 교령」, 30항). 본당 사목 평의회는 1983년 교회법전에서 규정한다.

33) 참조: 교구 사목 평의회(교회법, 제511~514조); 본당 사목 평의회(교회법, 제536~537조).

제안하고 있다.<sup>34)</sup> 따라서 여기서는 「최종 문서」의 주장을 살펴보면 서 한국 교회 의견서에 나타난 참여 기구에 대한 언급을 돌아보도록 하겠다.

## 1) 「최종 문서」에서 말하는 참여 기구

### (1) 현행 참여 기구의 확인과 의무화

「최종 문서」는 현행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참여 기구<sup>35)</sup>를 통해서 위에 언급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신자들의 참여, 그리고 책임감 있는 설명과 평가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시노드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요청된 대로 이 참여 기구들은 의무화되어야 하며, 순전히 형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된다. 이 기구들은 각각 토착화된 복음 선포, 고유한 환경에서의 공동체 사명,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인 세례 받은 이들의 증언을 위하여 필요한 식별에 참여한다. 참여 기구들은 시노드의 지침들을 신속하게 실행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들 가운데 하나이다.

### (2) 참여 기구의 구성

위원은 교회 역할을 바탕으로(은사, 직무, 체험, 또는 전문성 등) 다양하게 분화된 책임에 따라 구성한다. 선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체나 지역 교회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는 시노드 자문이 실행되어야 한다. 자문과 심의의 구분을 존중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더 다양하고 폭넓게 구성되어야 한다. 여성과 젊은이,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고, 공동체의 삶과 봉사를 조직하는 데에 관여하는 사람들

34) 참조: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84항; 제1회기 「종합 보고서」, 12.11; 제2회기 「최종 문서」, 104항.

35) 「최종 문서」는 다음과 같이 참여 기구들을 규정하고 있다. 교구 시노드(교회법, 제466조 참조), 사제 평의회(교회법, 제500조 제2항 참조), 교구 사목 평의회(교회법, 제514조 제1항 참조), 본당 사목 평의회(교회법, 제536조 참조), 교구와 본당의 재무 평의회(교회법, 제493조와 제537항 참조).

과 사도적·선교적 자질을 지니고 일상의 현실과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신앙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문서는 시노드 총회처럼 다른 교회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리고 타종교 대표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참여 기구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교구와 주교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 (3) 참여 기구의 방법론

이 참여 기구들은 시노드 작업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대화’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구와 본당의 사목 평의회 위원들이 사제평의회 위원들처럼<sup>36)</sup> 의제에 포함될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해야 한다(105항).

### (4) 사목 평의회 네트워크

「최종 문서」는 이미 시행 중인 모범 사례와 개혁 경험으로서 시노드 총회는 기초 공동체, 본당, 지구, 교구에 이르는 사목 평의회 네트워크를 들고 있으며, 모든 차원에서 자문과 경청의 본보기로서 교회 회합들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여기서 또한 자문을 교회 안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다른 교회들과 교회적 공동체, 그리고 타종교의 의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 (5) 교구 시노드의 활성화와 정기적 개최

지역 교회의 삶과 사명에 관해 주교가 자신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에 ‘정기적으로 자문하는 기관’이며 ‘경청과 기도와 식별의 장소’로 교구 시노드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교구 시노드 또한 책임감 있는 설명과 평가를 수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주교는 재정 관리와 재산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서의 사목 활동, 사목 계획의 실행, 교회 전체의 시노드 과정의 수용, 보호 문제에 관한 계획을 교구 시노드에서 보고한다. 따라서 「최종 문서」는 각 지역 교회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교구 시노드가 정기적으로

36) 참조: 교회법, 제500조 2항.

개최되도록 교회법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한편, 제1회기의 「종합 보고서」에서 참여 기구들은 제3부 18항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으로서 세례 받은 모든 이는 소명에 따라 교회의 사명에 공동 책임을 지고, 교회 전체와 교회 개혁을 위하여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시노드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서 시노달리타스는 사명을 목표로 하며, 공동 책임성은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시된다. 사명에 대한 모든 이의 공동 책임성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지역 교회의 모든 제도와 친교 조직에서 모든 봉사를 구조화하는데 기초적 준거가 되어야 한다. 또 하느님 말씀이 참여 조직들의 모든 만남, 자문, 그리고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모임이 그 의미와 힘을 성체성사로부터 길어 올리고, 경청하며 기도 안에서 나눈 말씀의 빛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시노드 교회에서 식별하고 결정하는 평의회들은 삶의 가장 일상적인 현실에서 참된 복음적 증언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세상과 그 변두리에 살면서 이미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참여 조직들 안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한국 교회의 제안

「제1회기를 위한 한국 교회 의견서」에서는 ‘8. 권위와 참여’ 항목에서 참여 기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8항에서는 교회 안에서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한 문제를 서술한 뒤에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곧 이미 교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여 기구들인 사제평의회, 교구 사목 평의회, 본당 사목 평의회, 재무평의회 등이 실질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이미 본당에 사목 평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평의회 위원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일반 평신도들은 분리되고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1회기 의견서」는 평의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특별히 사목 평의회에서 하느님 백성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각 기구의 위원을 임명·선출할 때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세속적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기준에 적합한 봉사자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며, 여하한 독점이 없도록 정기적인 구성원들의 변화와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사목 평의회의 핵심 기능은 ‘집행과 실행’이라는 측면에만 맞춰 있어 ‘자문 기구’ ‘경청 기구’로 새롭게 위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결정을 만들어가는 것’과 ‘결정을 내리는 것’의 조화가 있어야 하며, 평의회 위원들의 자문 책임과 사목자의 직무적 책임 사이의 문제도 본질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제1회기 의견서」에는 사목 평의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다양한 단계에 걸쳐, 곧 본당의 여러 단계를 비롯하여 각 지구와 교구, 더 나아가 주교회의와 보편 교회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띠었다.

「제2회기를 위한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에서는 참여 기구에 대해서 30-33항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목 평의회와 재무 평의회의 설치 의무화, 교구 차원에서의 사목 구조의 선제적 변화와 교구 사목 평의회의 활성화, 본당 사목 평의회 구성에서 하느님 백성의 대표성과 논의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부족, 자문 기구보다 집행 기구 성격 문제점 지적, 본당-지구-교구에 이르는 사목 평의회 의견 수렴 구조 마련(사목 평의회 네트워크), 지역 상황에 적합한 더욱 창의적인 참여 조직(‘하느님 백성의 대화’ 등) 개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 3. 주교회의와 시노달리타스

#### 1) 「최종 문서」에서 말하는 주교회의

「최종 문서」의 주교회의에 대한 제안(124~129항)은 다소 원론적인 느낌을 준다. 1980~1990년대에 주교회의를 둘러싼 논쟁들, 곧 주교회의의 신학적·법적 지위, 주교회의의 교리적·규범적 권한의 범위, 주교회의가 개별 주교와 사도좌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회의 일치와 보편성을 저해할까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이다.<sup>37)</sup> 나아가 제2회기는 구체적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교회의의 실제적 역할에 대한 경험, 주교들 간 관계와 사도좌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모든 교구가 주교회의에 귀속되고, 주교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참여한 주교는 자신의 교구에서 이를 적용함으로써 교회적 유대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25항).

또한 제16차 정기총회는 ‘건실한 분권화’와 신앙 토착화를 위해 주교회의와 함께 개별 공의회(관구 공의회 또는 전체 공의회)의 정기적 개최를 제안하고 있다. 개별 공의회는 교회 역사의 상당 부분 동안 의무가 되어 왔고, 현행 교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sup>38)</sup> 개별 공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노드 총회는 개별 공의회들이 내린 결론들을 사도좌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개혁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거나, 신앙, 도덕 또는 성사적 규율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순전히 사목적 또는 규율적 의제의 경우에는 암묵적인 동의와 동등한 법적 추론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129항).

한편, 제1회기 「종합 보고서」에서는 주교회의를 비롯한 지역 교회들의 연합체라는 주제는 교회 안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충만하게 실현하는 데에 본질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다(19. 2). 「종합 보

3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엄재중,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와 주교회의의 역할 연구」, 『신학전망』, 215호(2021년), 광주가톨릭대학교, 172~211쪽.

38) 참조: 교회법, 제439~446조.

고서]는 지역 교회들의 연합체가 시노달리타스와 단체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응답하면서 시노드 과정의 첫 단계가 올바로 진행된 데에는 주교회의들과 대륙별 회의들의 교회적 식별이 중요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교리 문제들에 대해 주교회의의 단체적 행위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주교회의에 대한 요한 바오로 2세의 자의 교서인 「주님의 사도들」을 재성찰할 것을 촉구하고, 주교회의의 교리적·재치권적 성격에 대한 더 깊은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제안 사항으로 어떤 주교회의에도 속하지 않는 주교들을 위한 국제 교회 관구의 설립, 대륙회의의 교회법적 형태를 구상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2) 한국 교회의 의견

주교회의와 관련해서 「제2회기를 위한 한국 교회 의견서」는 현재 주교회의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의 경청 구조 또는 의사 수렴 구조를 시노달리타스에 기초하여 대폭 변화시킬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것은 더 많은 하느님 백성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인데, 대표적인 예로서 총회 전에 하느님 백성을 대표하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주교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개최해서 더 많은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나아가 이번 시노드 총회에서 제안된 것처럼 ‘전체 공의회’(plenary council)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sup>39)</sup>

또한, 주교회의의 총회 자체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나 회의 진행 방식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sup>40)</sup> 주교회의 차원에서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교회 내 문화적 환경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sup>41)</sup> 마지막으로 제2회기 뒤의 제16차 정기총회의 이행 단계를 위해 교구와 주교회의 차원에 상설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

39) 참조: 「제2회기를 위한 한국 교회 의견서」, 34항

40) 참조: 같은 글, 35항.

41) 참조: 같은 글, 36항.

다.<sup>42)</sup> 주교회의 차원의 상설 기구 요청 등은 「최종 문서」, 9항에서의 이행 국면에서 각국 주교회의에 요청한 사항들과도 조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V. 나오는 말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시작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는 교회의 삶에도 이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이것을 일회성 행사로 치부한다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3년의 시노드 과정이 교회 됨의 소중한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여기서 얻은 체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는 제16차 정기총회 결과를 지역 교회 안에서 이행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행기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어떻게 더 수용하고 경청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제16차 정기총회 「최종 문서」는 ‘경청과 동반의 직무’를 제안하고 있다(78항). 이 직무는 「제1회기 의안집」에 처음 등장하고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주민 등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활동을 위한 것으로 묘사되었지만,<sup>43)</sup> 제1회기 총회 결과 발표된 「종합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밖으로 나아가는 활동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내 다양한 폭력의 희생자들을 향한 직무로서도 설명되고 있다(‘16. 동반하는 교회를 위하여’).

「제2회기 의안집」에서 시노드 교회는 경청하는 교회, 환대하고

42) 참조: 같은 글, 37항.

43) “가난한 이들과 이주민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을 가능성은 종종 그들의 삶을 기꺼이 경청하려는 태도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경청과 동반의 특별한 직무를 인정하는 것이 의미 있을까? 정의로운 사회 건설과 공동의 집을 돌보기 위한 임무의 형태를 참된 소명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또한 직업적 선택으로 교회가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제2부 1.1 7)).



동반하는 교회라는 인식으로 이어졌고 이를 위해 고유하게 제정된 직무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 제2회기 「최종 문서」에서 이 경청과 동반의 직무는 더욱 넓어져서 성사 집전, 교리교육, 양성과 사목 등 교회적 삶의 모든 차원에 걸친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어떤 면에서 경청과 동반은 모든 신자들의 임무이지 어느 특정 임무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시노달리타스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직무로서 이 경청과 동반의 직무는 그동안 교회적 삶에서 부족했던 어떤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 전체의 삶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16차 정기총회 폐막 미사에서 말한 내용도 이와 같다.<sup>44)</sup>

이러한 경청과 동반을 교회의 삶에서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종 문서」가 제안한 것처럼 소공동체와 본당, 지구, 교구로 이어지는 사목 평의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주교회의를 통해 모이는 구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한 본당 안에서 사목 평의회가 소공동체를 비롯한 다양한 모임과 단체들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듯, 교구의 참여 기구 역시 본당과 지역의 활성화 없이는 어렵다. 주교회의 역시 각자의 교구에서 사목 평의회를 비롯한 참여 기구들을 통해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회원 주교들 간의 단체적 직무 수행은 그 결실을 맺기 쉽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사목 평의회를 둘러싼 한국 교회의 시노드적 소통 구조를 편의상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수직적 소통 구조에서는 소공동체와 본당, 지구, 교구, 주교회의로 이어지는 차원을 말하고, 수평적 차원은 소공동체와 본당

44) “교회는 세상의 모든 여성과 남성과 복음의 기쁨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외침, 신앙에서 돌아선 사람들과 무관심한 사람들의 소리 없는 호소, 고통받는 사람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세계 곳곳에서 노동의 노예가 된 어린이들의 외침, 목소리가 없거나 절망에 빠져 더 이상 하느님께 부르짖을 힘이 없는 사람들의 상처받은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주하고 패배주의에 빠진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일부의 비난이 있더라도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섬김에 손을 더럽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구라는 지역 교회 안에서 하느님 백성의 사명 실천을 일컫는다. 수직적 차원은 최근 진행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과정을 통해 잘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수평적 차원에서는 지역 교회의 하느님 백성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 안에서 다양한 직업과 사회적 여건 아래서 그리스도의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바로 이 신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육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렇기에 시노달리타스의 실현에서 보조성과 연대성의 원리는 유지되어야 한다.<sup>45)</sup>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하느님 백성의 일상적 삶이 시작되는 ‘본당’과 ‘본당 사목’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해 주었다. 공동체의 성찬례가 불가능한 곳에서 성체 성사적 삶이 비로소 꽃피워져야 함에도 여러 상황들은 그렇지 못했다. 소수의 봉사자들과 활동가, 사목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의 공포 속에서 고립되었고 교회는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은 지난 시절의 사목, 곧 “관료적이고 과도한 행사 조직과 봉사 제공에 매몰되고 일부 신자들 위주로 이루어지며 모든 것이 성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sup>46)</sup> 기존 사목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요청한다.<sup>47)</sup> 이 쇄신에 요청되는 시노달리타스는 사명 수행을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서 더 탄탄하고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는 시노달리타스라는 총체적이고 단일한 비전 아래 다가오는 미래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폭풍우 속에서도 함께 버티고, 상처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고, 서로 돌보는 사람들 속에서, 그 소용돌이의 그물망 안에서 희망을 본다.

45) 엄재중·이규성,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와 ‘사목 평의회’를 통한 시노달리타스 실현」, 『신학과 철학』 46호(2024 봄), 38-39쪽.

46) 교황청 성직자성,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 2020, 34-41항.

47) 참조: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사목 백서』, 2024, 299쪽.

## [참고 문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2.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1983),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옮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989.

## 프란치스코 교황

- 『렛 어스 드림: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 강주현 옮김, 21세기북스, 2020.  
회칙 「모든 형제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교대의원회의에 관한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Episcopalis Communio*, 2018.9.15.: <https://cbck.or.kr/Notice/13013832?page=53>, 검색일: 2024.9.21).  
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2015.10.17.: <https://cbck.or.kr/Notice/20210621?search=%EC%A3%BC%EA%B5%90%EB%8C%80%EC%9D%98%EC%9B%90%ED%9A%8C%EC%9D%98&tc=title&gb=K1200>, 검색일: 2024.7.21).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2회기 폐막 미사 강론(<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homilies/2024/documents/20241027-omelia-conclusion-sinodo.html>, 검색일: 2024.11.23).

## 교황청 문헌

-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박준양·안소근·최현순 옮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성직자성,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 2020.

##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문헌-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 『예비 문서』(*Preparatory Document*)와 「편람」  
「대륙별 단계 작업 문서」(2022.10.24.)(<https://cbck.or.kr/Notice/20221130?search=%EC%A3%BC%EA%B5%90%EC%8B%9C%EB%85%B8%EB%93%9C&tc=title&gb=K1200>, 검색일: 2024.9.26).  
「제1회기 의안집」(*Instrumentum Laboris*, 2023.10)(<https://cbck.or.kr/Notice/20230370?page=3&gb=K1200>, 검색일: 2024.10.24)  
「제1회기 종합 보고서」(*Synthesis Report*, 2023.10.4-29)(<https://cbck.or.kr/Notice/>

- 20230653?gb=K1200, 검색일: 2024.9.22).
- 「제2회기 의안집」(*Instrumentum Laboris*, 2024.10)(<https://cbck.or.kr/Notice/20242344?gb=K1200>, 검색일: 2024.10.23).
- 「최종 문서」(*Documento Finale*)(<https://cbck.or.kr/Notice/20242480?gb=K1200>, 검색일: 2024.11.25).

## 한국 주교회의 문헌

-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https://cbck.or.kr/Documents/Other/20221041?category=K5170&gb=title&search=%EC%84%B8%EA%B3%84%EC%A3%BC%EA%B5%90%EC%8B%9C%EB%85%B8%EB%93%9C%20%EC%A0%9C16%EC%B0%A8%20%EC%A0%95%EA%B8%B0%EC%B4%9D%ED%9A%8C%20%ED%95%9C%EA%B5%AD%20%EA%B5%90%ED%9A%8C%20%EC%A2%85%ED%95%A9%20%EC%9D%98%EA%B2%AC%EC%84%9C>, 검색일: 2024.11.24).
- 「아시아 대륙 회의를 위한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https://cbck.or.kr/Notice/20230203?page=7&gb=K1200>, 검색일: 2024.11.23).
-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2회기 준비를 위한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https://cbck.or.kr/Notice/20242217?search=%EC%84%B8%EA%B3%84%EC%A3%BC%EA%B5%90%EC%8B%9C%EB%85%B8%EB%93%9C%20%EC%A0%9C16%EC%B0%A8%20%EC%A0%95%EA%B8%B0%EC%B4%9D%ED%9A%8C&tc=title&gb=K1200>, 검색일: 2024.11.24).
-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사목 백서』, 2024.

## 논문

- 엄재중,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와 주교회의 역할 연구」, 『신학전망』 215호(2021년), 광주가톨릭대학교, 172~211쪽
- 엄재중·이규성,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와 ‘사목 평의회’를 통한 시노달리타스 실현」, 『신학과 철학』 46호(2024 봄),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7~46쪽.

## 언론 기사

Merlo, Francesca, “Pope: ‘Synod final document forms part of papal Magisterium’”, *Vatican News*, 25 November 2024(<https://www.vaticannews.va/en/pope/news/2024-11/pope-synod-final-document-forms-part-of-papal-magisterium.html>, 검색일: 2024.11.27).

## 국문초록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한국 교회의 사목에 대한 탐구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두 개의 사건이 시기적으로 겹치기도 하지만 여러 문헌과 전언들을 보아 제16차 정기총회는 분명히 팬데믹이 가져온 어떤 상처와 도전에 대한 교회의 응답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체험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세계와 교회가 당면한 위기의 정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개최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는 이 도전과 위기 속에서 교회가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사건이었다. 이에 팬데믹 한가운데서 감염의 위협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하느님 백성으로 교회의 삶에 대해 돌아보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 대해 성찰하였다.

2021년에 10월에 시작되어 2024년 10월에 폐막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는 그런 면에서 팬데믹 이후 교회의 사목과 나아갈 길을 모색한 시노드였다. 그것은 단지 「최종 문서」만 남긴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지역 교회들과 보편 교회 안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에 따른 시노드 방법론들을 남겼다. 제2회기 총회의 폐막으로 제16차 정기총회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지역 교회 단위의 이행 과정을 남겨 놓고 있다. 한국 교회는 이번 총회의 결실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사목 현장에서 이를 적절히 수용하고 이행할 과제가 남겨져 있다.

특히 이번 제16차 정기총회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노드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기존의 참여 기구와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과제를 안겨 주었다. 이제는 교황의 통상 교도권 문서로 인준된 제16차 정기총회의 「최종 문서」를 토대로 해서 한국 교회가 3년의 시노드 과정에서 작성한 3개의 종합 의견서들을 함께 겹쳐 보면서 한국 교회 안

에서 참된 시노드 구조는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참여 기구의 기본 원리로서 「최종 문서」가 제안하는 ‘교회적 식별, 결정 과정, 투명성 / 책임감 있는 설명 /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사목 평의회와 주교회의로 이어지는 시노드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주제어: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참여 기구의 원리들, 사목 평의회, 주교회의.